

☑ 강남대첩 승리 ☑ 신용등급 상향 ☑ 재건축 잇따라 수주

‘더샵’ 승승장구 비결은... 덕장 한성희의 ‘소통 리더십’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사장.)

POSCO 포스코건설

한성희 사장 리더십 새롭게 조명
3년간 매출 10조, 영업이익 4000억
‘안전’ 최우선 경영키워드 강조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 수주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사장.

포스코건설이 서울 강남 재건축 수주 대전의 승자로 부상하면서 ‘덕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의 리더십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1년 만에 신용등급 상향을 이뤄내는 등 한 사장이 지휘봉을 잡은 후 떠오르는 강자로 주목받고 있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은 1961년생으로 연세대 경제학과와 캐나다 맥길대 경영대학원 출신이다. 그는 지난 1993년 포스코에 입사한 후 줄곧 포스코에 몸담은 ‘포스코 맨’이다.

포스코의 베트남 아연도강판 생산법인인 포스비나(POSVINA) 법인장을 거쳐 2009년 투자사업실 출자관리그룹 리더, 2010년 경영시너지그룹 리더를 맡은 뒤 지난 2012~2015년까지 포스코 건설에서 경영기획·미래전략담당 상무로 재직했다.

그가 포스코건설에 몸담았던 3년간 포스코건설은 실적과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매출 10조원, 영업이익 4000억원을 달성하며 역대급 성적을 냈고 200%를 웃돌

았던 부채비율도 100% 후반대로 낮아졌다.

◆ ‘재무통’ 사장, 소통과 협업 리더로 정평

‘재무통’으로 불리는 한 사장은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 취임 직후 ‘더샵’ 브랜드 리뉴얼에 나서며 포스코 건설 이미지 제고에 나서며 포스코그룹의 경영이념인 ‘기업시민’ 이미지 구축에도 힘을 기울이는 중이다.

한 사장은 취임사에서 임기 중 추진할 경영 키워드 중 하나로 ‘안전’을 강조했을 정도로 현장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지난 1월 취임 후 첫 업무로 안전기원행사에 참석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그는 2020년 한해 국내외의 현장 70여 곳을 직접 방문해 안전점검과 실적을 확인하는 현장 경영계획도 세웠다.

최근에는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 일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진료에 힘쓰고 있는 지역 의료진과 공무원에게 화분을 전달하고 감사를 표한 바 있다.

이밖에도 한 사장은 사내에서 ‘소통의 리더’로 통한다. 직원과의 토론을 중시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강조해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먼저 관련 부서 사이 협의를 반드시 거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슬기로운 거리두기’를 제안하며 직원들에게 5권의 도서를 추천하기도 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소통과 협업을 중요하게 생각해 직원과 허물없이 직접 소통하며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 도시정비사업 수주 ‘해가’... 신용등급 향상

한 사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포스코 건설은 도시정비사업 수주와 신용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상반기 정비사업 수주 성과가 가장 눈에 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7일 공사비 약 1700억원 규모의 용인 수지구 보원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21일 1480억원 규모의 대구 경남타운 재건축사업, 16일에는 공사비 1668억원 규모의 서울 강동구 명일동 복합시설인 주양쇼핑의 재건축 사업을 따냈다.

‘강남 재건축 수주대전’의 격전지가운데 하나인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의 시공권도 GS건설과의 경쟁 끝에 얻어냈다.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은 공사비 약 1020억원 규모다. 포스코건설의 강남 진출은 지난해 11월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사업 수주 이후 처음이다.

포스코건설은 아파트 건설 공정이 6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방식으로 조합원의 마음을 얻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상반기 정비사업장 수주와 관련해 올해 초 더샵 브랜드 리뉴얼 및 철강·브랜드 홍보관 더샵갤러리를 오픈하는 등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로써 포스코건설은 상반기 ▲신반포21차(1020억원) ▲주양쇼핑(1668억원) ▲대구 경남타운(1480억원) ▲용인 수지구보원아파트(1700억원) 등 1개월 동안 총 4건(5868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하반기 노량진·성수전라정비구역재개발, 신반포 재건축 및 자양 우성 리모델링 등과 같

은 정비사업의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파죽지세’와 같은 정비사업 결과와 함께 신용등급도 올랐다. 코로나19와 부동산 규제로 건설사의 실적 전망이 나빠진 상황에도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포스코건설의 신용등급을 ‘A’ (긍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4월 A0(긍정적)에서 A0(안정적)으로 조정된 후 1년 만에 재차 신용등급 상향을 이뤄낸 것이다. 올해 신용등급이 오른 건설사는 포스코건설이 유일하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상향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안정된 재무구조 수립과 건실한 성장이 병행될 수 있도록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주양쇼핑 재건축 투시도.

/포스코건설



무더위 피해 한강으로 나선 시민들
휴일인 내륙 대부분에서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시민공원에서 시민들이 텐트를 펼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스1

에이빈시오, 작년 美 FDA 판매허가 심사 착수

▶▶ 1면 ‘삼성에피스 항암제...’서 계속

에이빈시오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선 보이는 다섯 번째 바이오시밀러 제품이자 두 번째 종양질환 치료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유럽에서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베네팔리’(엔브렐 바이오시밀러), ‘임랄디’(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플릭사비’(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와 유방암 등의 종양질환 치료제 ‘온트루잔트’(허셉틴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고 있다.

특히, 에이빈시오는 지난 해 11월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판매허가 심사에 착수해 시장 확대도 기대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9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에이빈시오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다.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 총 76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리스크 반응 비율 측면의 동등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세경 기자

과기부, 이동통신 주파수 기존 이용자에 재할당

이통3사, 현재 사용중인 3G·LTE 내년에도 일정기간 동안 사용

정부가 내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재할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현재 3G 서비스와 통털에 불루선(LTE)에 사용 중인 주파수를 내년에도 일정 기간 사용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320MHz 폭 중 SK텔레콤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2G 주파수 10MHz 폭을 제외한 310MHz 폭이 재할당 대상이다.

현재 쓰이는 3G와 LTE 주파수를 회수·경매해 사업자가 바뀌면 서비스의 연속성이 없어져 자원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또 마지막 남은 LG유플러스의 2G 주파수(20MHz폭)도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재할당 대상 주파수 및 재할당 대역폭〉

구분	SKT	KT	LGU+	합계
이용기간 종료 주파수	105MHz	95MHz	120MHz	320MHz
재할당 대역폭	95MHz	95MHz	120MHz	310MHz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비스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기로 했다.

2G와 3G 대역 50MHz 폭과 관련해 과기정통부 측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해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LTE 대역 270MHz 폭도 재할당된다. 과기정통부는 5G 통신이 LTE 주파수를 이용하는 만큼 품질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LTE 주파수를 지속해서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및 전파정책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LTE 트래픽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해 여유 주파수 발생 시점에 5G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 주파

수 이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사업자가 주파수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 및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11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시장환경도 5G 기반으로 점차 전환되는 시점에 여러 세대의 서비스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통신망도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